

한우 한우농가들의 '도전! 골든벨'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우자조금이 KBS 추석특집 <도전! 골든벨>의 촬영을 무사히 마쳤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지난 8월 12일, 13일 양일간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한우농가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KBS 추석특집 도전! 골든벨'을 진행했다. 한우자조금은 추석을 맞아 한우고기 소비홍보를 위해 특집방송을 기획했으며 전국의 한우농가 100명이 퀴즈를 풀며 다양한 장기자랑도 선보였다. 이 방송은 추석 전날인 9월 7일 오후 7시 10분부터 50분간 KBS1에서 방송된다. 한편 이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돈의 황금소가 주어졌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08. 18]

한돈 한돈자조금, 해운대서 '한돈 쿨쿨 페스티벌' 개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부산 해운대 스마트비치에서 3000여명의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돈 쿨쿨(COOL COOL)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한돈 저지방 부위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앞다리살로 만든 또띠아 시식행사(400인분), 몸짱 컨테스트, 한돈 OX퀴즈, 푸쉬업 대결, 림보 게임 등 다양

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협찬한 국제피트니스전문가협회(IFPA KOREA)에서는 국가대표 보디빌더

김재현 선수가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여 객석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병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무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에게 한돈이 건강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돈 저지방 부위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돈 쿨쿨 페스티벌 및 한돈 저지방 부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돈닷컴(www.han-d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농 우유

우유자조금, TV광고 스타트



우유자조금 TV광고가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우유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손정렬)는 최근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우유 밖에 없습니다’가 핵심카피로 등장하는 TV광고를 제작해 8월 1일부터 방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TV광고는 우리 몸에 좋은 114가지 영양소를 포함하고, 290가지 항목테스트를 통해 365일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유의 우수성이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우유 밖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대체 불가능한 우유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동안 우유자조금 TV광고는 유명인들을 등장시켜 우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이미지 광고였는데 반해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모델로 등장해 각 세대별 우유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컨셉의 광고로 만들어져 정서적 공감대가 극대화됐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

년에 집중된 우유소비를 중장년, 노년층까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광고 중간에 등장하는 K-MILK인증 마크와 이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지면서 낙농육우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산우유인증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정렬 위원장은 “이번 TV광고는 우유의 다양한 효능과 다른 식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품질 우수성을 표현하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흰 우유의 우수성을 친근하게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유자조금 TV광고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중파와 종편채널, 케이블 등의 주요 시청 시간대에 방영된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4. 08. 13]

양계

양계사진공모전 8월 11일 ~ 9월 27일 개최



(사)한국토종닭협회가 주관하고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4회 양계사진공모전'이 개최된다.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양계사진 공모전은 친근한 양계사진을 일반인에게 소개함으로써 국내 양계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3저1고 건강식품인 국산 닭고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공모(응모)기간은 2014년 8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7주간이다.

공모주제는 △닭과 관련된 생활 속의 다양하고 자연스런 조화를 이루는 모습, △아름다운 농장과 닭,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닭고기 요리 및 시식 모습, △기타 닭 관련 사진 등이다.

접수는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작품은 흑백 또는 칼라 8×10인치 인화물과 사진 파일이 수록된 CD를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흑백 또는 칼라 8×10인치 인화물과 사진 파일이 수록된 CD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토종닭협회 홈페이지(www.knca.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심사를 통해 대상 1점(상장 및 상금 150만원), 우수상 2점(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3점(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입선 30점(상금 각 15만원) 등 총 79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모든 입상작은 닭고기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양봉협회, 스위트트럭과 양봉산물 품질관리 업무체결



양봉산업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한국양봉협회(회장 조균환)는 지난 8월 2일 경기도 포천소재 꽃샘식품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초청해 '양봉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균환 양봉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20여 명과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김용래

한국양봉농협조합장, 이한인 포천축협장 등 협동조합 관계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경기도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꽃샘종합식품을 견학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양봉업계의 현안에 대한 건의가 쏟아졌다.

강순종 양봉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꿀벌 종자개량 및 보급체계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꿀벌 육종 전담기관 신설 및 전문 육종장 설립을 주문했고, 김광배 충남지회장은 산림청 주관의 숲가꾸기 운동으로 인해 아카시아 나무의 무분별한 벌채로 밀원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박용욱 경북지회장은 양봉농가 등록제 의무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산림청에서 국공립 묘목 식재 시 다양한 밀원수를 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회와 산림청의 만남을 주선하겠다. 등록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진입에 장애가 없는 한에서 시행토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오만균 양봉협회 부회장은 “국내 벌꿀 및 양봉산물 기능성 연구 분석 결과가 없어 양봉산업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며 “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양봉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향후 양봉산업 육성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로 TF팀을 구성기로 했다.

조균환 회장은 “양봉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TF팀에서 상세하게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양봉산업의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4. 08. 07]